

■ 주요 뉴스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, 연준의 긴축강화 가능성 등으로 2년 만에 최고치

- 미국 1월 NAHB 주택가격지수, 전월비 하락. 건축비용 상승 우려 등이 반영
- 중국 인민은행, 경제성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 조치를 강구할 방침
- OPEC, 금년 유가는 양호한 수요로 상당한 수준에서 지지될 전망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조기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
주가 하락[-1.8%], 달러화 강세[+0.5%], 금리 상승[+9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빅테크의 주가 부진 등으로 3주래 최저 수준
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.0%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영향
유로화가는 0.7% 하락, 엔화는 강보합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긴축강화 전망 등으로 2년래 최고치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93.7원, +2.7원) 0.2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1/18일	1/17일	전일대비			1/18일	1/1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577.1	4,662.9	-1.84%	국채 금리 10y	미국	1.87%	1.78%	9bp
	유럽	479.79	484.51	-0.97%		독일	-0.02%	-0.03%	1bp
	중국	3,569.9	3,541.7	0.80%	CDS 5y	한국	24bp	24bp	0bp
	일본	28,257	28,334	-0.27%		중국	49bp	50bp	-1bp
	한국	2,864.2	2,890.1	-0.89%	위험 지표	EMBI+	-	409	-
환율	달러지수	95.74	95.26	0.50%		VIX	22.79	19.19	18.76%
	유로화	1.1325	1.1408	-0.73%		WTI유	85.43	83.82	1.92%
	엔화	114.61	114.63	0.02%	원자재	구리	440.1	442.1	-0.44%
	위안화	6.3530	6.3484	-0.07%		금	1,813.7	1,819.2	-0.30%
	원화	1,190.1	1,192.7	0.22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, 연준의 긴축강화 가능성 등으로 2년 만에 최고치

- 1/18(화)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.87%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상승. 이는 연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. 2년물 국채금리(1.04%)도 202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%대에 진입
- 최근 선물시장에서는 금년 4~5회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시. Brooks Macdonald의 Edward Park은 작년 10월에는 금년 말 1회 금리인상을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4회를 예상하고 있다면서, 이는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수준이 매우 높다는 의미라고 평가
- BlackRock의 Larry Fink 회장은 최근 국채 수익률곡선에서 플래트닝(flattening)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, 이는 경제전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의미한다고 지적. 또한 2013년에 있었던 테이퍼링 탠트럼을 연상시킨다고 참언
- 다만 Capital Economics의 Thomas Mathews는 아직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기에 지금과 2013년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. 한편 주가는 국채금리 상승으로 큰 폭 하락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가 2.6% 내렸고, 변동성지수(22.79)는 18.76% 상승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1월 NAHB 주택가격지수, 전월비 하락. 건축비용 상승 우려 등이 반영

- 전미주택건설업협회(NAHB)에 따르면, 해당 지수는 83으로 전월(84) 대비 하락. NAHB의 Chuck Fowke는 최근 주택자재 공급 부족으로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급등했다면서 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

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고물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면 ECB는 조치를 취할 전망

-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더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나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

■ 독일 1월 ZEW 경기기대지수, 6개월 만에 최고치. 팬데믹 사태 완화 기대에 기인

- 해당 지수는 51.7로 전월(29.9) 및 예상치(32.0) 대비 큰 폭 상승. ZEW의 Achim Wambach는 연초 이후 경제 전망이 크게 개선되었으며, 다수의 전문가들은 향후 6개월 동안 양호한 수준의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

■ 중국 인민은행, 경제성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 조치를 강구할 방침

- 꾸준한 조달금리 하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, 위안화 안정도 유도하겠다고 발표. 또한 신용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, 경제 및 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

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, 경기둔화를 대비한 정책 도구는 충분

- 다 유안 대변인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시의 적절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. 또한 전반적인 경제 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며, 국내수요와 산업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

■ 일본은행, 통화완화 기조 유지. 경제성장률 및 물가 전망은 상향 조정

-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자산매입도 유지하기로 결정. 금년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(2.9%→3.8%)했고,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수정(0.9%→1.1%). 이전보다 구조적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진단
- 구로다 총재는 물가상승 압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, 현행 통화완화 기조를 수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강조. 한편 향후 물가수준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, 결국 목표치인 2%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

■ OPEC, 금년 유가는 양호한 수요로 상당한 수준에서 지지될 전망

- 금년 오미크론 확산과 금리상승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원유시장에서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기대. 또한 연준이 금리인상을 연이어 단행한다고 해도 금년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을 크게 저해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
- 골드만 삭스는 금년 3/4분기 배럴당 브렌트유 가격이 생산시설 부족과 제한적인 수준의 신규투자 등의 영향으로 1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/18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: -0.7, '21년 12월(31.9), 예상치(25.7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/19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'21년 12월 주택착공건수 및 건설허가건수. 독일 '21년 12월 소비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통화긴축, 금융시장 등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파악이 중요 - 블룸버그

(When Will Monetary Tightening Hit Financial Conditions?)

-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어느 시점부터 의미 있는 긴축으로 연결되며, 세계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. 다만 최근 주요 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지만, 아직까지 금융시장과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적은 편
- 이는 투자자들이 기존의 대규모 유동성 기반이 긴축정책 부작용으로 크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. 또한 연준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장 신뢰와 마땅한 투자대안이 부족하다는 현실 등에 기인
- 이러한 통화정책의 전환과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반응의 불일치는 향후 가시화되지 않은 충격이 현실로 반영되면서 정책오류로 판명될 가능성

■ 중국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, 소득분배 불균형의 단면 - Financial Times

(China's record trade gap a symptom of struggle to rebalance its economy)

- 2021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통계작성 이후 최대. 이는 부진한 국내 소비를 보완하는 측면도 있으나, 국내 및 외국 수요의 불균형을 반영. 또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는 제조업 성장 등이 아닌 부채와 임금상승 억제 결과
- 현 상황에서 전체 국가소득 중 임금을 높여 가계 비중이 커져야 경제 내 불균형 구조의 해소가 가능.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 투자와 부채의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, 이는 여타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초래

■ 미국 달러화 반등, 신흥국 통화의 단기 랠리를 종식시킬 가능성 - 블룸버그

(U.S. Dollar's Comeback May Cut Short Rally in Emerging Currencies)

■ 미국 연준, 기후 변화 등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규제 강화가 요구 - Financial Times

(Fed needs a tougher stance on regulation)

■ 중국 경제, 복합적인 정책문제의 해소가 현 성장둔화의 처방전 - 닷케이

(中国は政策不況の根源を直視すべきだ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